

##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 유학을 마치며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3학년 심운제

2018년 2월 1일,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의 짧은 교환학생 생활이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준비할 때, 낮은 성적으로 붙을 수 있었는지 고민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면접을 보고, 합격했을 때만 해도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불안이 즐거움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공했고, 돌아가게 되면 변함없이 일본학을 전공할테지만, 일본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체험할 수 있었던 일본은 제가 느껴왔던 것 그 이상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휴식이었습니다. 유학생 생활은 5개월로 아주 짧고, 귀국하게 되면 졸업과 취업 준비로 바쁠 것이기에, 일본 구석 구석을 관광하고 다니면서 많은 체험을 하고, 바빴던 한국 생활에서 귀찮아서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혼자서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고 없는 외국에 나와서 혼자 생활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빨래도 하고 밤 늦게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기숙사 주변 고양이들을 찾아다니던 기억은 평생가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집과 학교가 멀었기 때문에 불러낼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없었지만, 교환학생에 와서, 좋은 한국인 친구들은 물론, 외국인 친구들과도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좋은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신 모리야마 교수님과 유학생 하나하나 보살펴 주셨던 스고 교수님과 와타나베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교수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가면 지금과 같은 여유 있는 생활을 보내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유학 생활의 기억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인생이지만, 일본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만큼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오오야마와 묘가다니의 통학길이 너무나도 그리울 것 같습니다.

